

## ‘운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으로 문학기행

정병욱이 지켜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운동주를 시인으로 부활시킨 결정적 유산

광양시가 12월 30일 운동주 탄생 108주년을 앞두고 운동주의 유품시고를 간직해 시인으로 부활시킨 광양 망덕포구의 정병욱 가옥으로 떠나는 문학기행을 추진했다.

광양은 운동주가 생전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지만, 일제강점기 출간이 좌절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지켜내 명실상부 시인으로 부활시킨 문학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병욱은 운동주가 각별하게 아끼던 연희전문학교 후배로, 우리말글이 금지됐던 시대에 운동주가 직접 써서 묶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소중한 간직해 세상에 알린 장본인이다.

정병욱이 지켜낸 시고에는 ‘서시’, ‘별 헤는 밤’, ‘자화상’ 등 시대의 어둠을 비추는 별과 같은 19편의 시가 운동주의 유품으로 또박또박 담겨 있다.

정병욱은 회고록 ‘잊지 못할 운동주행’에서 “내 평생 해낸 일 가운데 가장 보람 있고 자랑스러운 일은 운동주의 시를 간직했다가 세상에 알린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운동주를 잊지 않겠다는 뜻으로 운동주의 시 ‘흰 그림자’에서 따온 ‘백영(白影)’을 자신의 호로 삼았다.



운동주는 1917년 12월 30일 북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나 명동학교와 평양 숭실중학교를 거쳐 서울 연희전문학교에 진학했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1941년 겨울, 졸업을 앞둔 운동주는 그동안 써온 시 가운데 18편을 골라 ‘서시’를 붙여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의 시집 원고를 3부 여었다.

운동주는 한 부를 직접 간직하고, 한 부는 지도교수 이양하에게, 나머지 한 부는 함께 하숙하며 각별한 정을 나눈 후배 정병욱에게 건넸다.

비록 정식 출판은 이루어지지 못

했지만, 운동주는 77부를 인쇄해 지인들과 나누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시대의 벽은 높았다. 운동주는 일본 유학 중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돼 투옥됐고, 결국 차디찬 형무소에서 순국했다.

생전에 시인으로 등단하지 못한 운동주는, 정병욱이 지켜낸 진필 유품을 바탕으로 1948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간행되면서 비로소 시인으로 부활했다.

광양 망덕포구에 위치한 ‘운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등록문화재 제341호)에는, 명주 보자기에 쓴 유품을

항아리에 담아 마룻바닥 아래 보관했던 당시의 상황이 생생히 재현돼 있다. 가옥에서 포구를 따라 500여 미터 떨어진 곳엔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수록된 31편 전편을 시비로 조성한 ‘운동주 시 정원’이 조성돼 있다.

이곳에는 ‘서시’, ‘별 헤는 밤’, ‘자화상’은 물론, 영국 국왕 찰스 3세가 국빈 만찬에서 영어로 낭송해 화제를 모은 ‘바람이 불어도 포함돼 방문객의 눈길을 끈다.

광양시는 망덕포구와 배알도 섬 정원을 잇는 해상보도교 명칭을 ‘별헤는 다리’로 명명하고 운동주 테마 관광상품 운영 및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등 광양과 운동주의 관계 브랜딩에 힘쓰고 있다.

이현주 관광과장은 “운동주의 생물학적 고향은 북간도이지만, 시인 운동주의 문학적 고향은 그의 유품 시고를 지켜낸 대한민국 광양”이라며 “운동주 탄생 108주년을 맞아,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추구한 운동주의 순결한 시 정신을 기리는 역사·문학기행을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전남도, 고흥 무열사 고문서 등 5건 문화·무형유산 지정  
지역 역사성·생활문화 다양성 체계적 보존·계승위해

전라남도는 역사·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문화유산과 전통기술·공동체 문화를 담은 고흥 무열사 소장 고문서, 화순 능주 들소리 등 문화·무형유산 5건을 도 지정유산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전남 남 지역이 지닌 역사성과 생활문화의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 정체성을 미래 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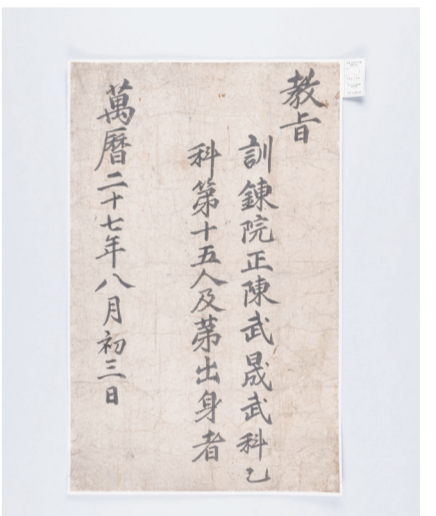
‘고흥 무열사 소장 고문서’는 도 지정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조선 무반가문 역사를 담은 고문서로 임진왜란 당시 선무원종공신 1등에 책록된 진무성(1566~1638)과 그 일가 5대에 걸친 문서 70점으로 구성됐다. 흥패·교지·호구단자·서간류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관청에서 책으로 펴낸 관한 사료에 기록되지 않은 인물과 향촌사회의 실제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서, 임진왜란사와 조선 후기 무반가문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또 오경식(1947년생) 장인이 전남도 무형유산 ‘악기장’ 보유자로 인정됐다. 전통 국악기 제작 기술 계승을 하고 있으며, 전남도 악기장 보유자였던 고 강사원 선생으로부터 전통 장구 제작 기법을 사사받아 현재까지 유일하게 전통 방식에 따른 제작 기술을 온전히 계승하고 있다. 전통 국악기 제작 명맥이 단절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전통기법 보존과 전승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지역 공동체 삶의 노래인 들소리·길쌈노래 등 3종목은 신규 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화순 능주 들소리’는 농경 공동체의 협력과 유대 문화를 생생히 보여주는 전통 노동요로, 현재까지 주민들이 주체가 돼 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화순 내평리 길쌈노래’와 ‘진도 소포리 길쌈노래’는 길쌈 과정에서 불리는 민요



로, 오랜 기간 학술 자료로 축적된 역사성과 지역적 특색을 간직하고 있다. 특히 진도 길쌈노래는 외부 음악 요소를 적극 수용해 지역화한 독특한 전통 민요로 인정됐다.

강효석 전남도 문화용성국장은 “전남의 유산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에도 살아 있는 삶의 기록”이라며 “앞으로도 숨겨진 지역 유산을 적극 발굴하고, 도민과 함께 지키도록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정과 함께 ‘곡성 죽산리 석조여래입상’, ‘필장’ 등 3종목을 전남도 문화 및 무형유산으로 지정 예고했으며,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을 거쳐 전남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지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명수 기자

담양 한국대나무박물관, ‘전시관 추억 여행’ 무료 관람 운영  
리모델링 착공 전까지 전시된 죽공예 역사의 흔적을 선보이다

한국대나무박물관이 2026년 10월 시작될 리모델링 공사에 앞서, 현재 전시관의 모습과 죽공예의 기록을 군민과 관람객에게 다시 소개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착공 전까지 ‘전시관 추억 여행’ 무료 관람 기간을 운영한다.

1981년 죽물박물관으로 개관한 한국대나무박물관은 2003년 리모델링을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갖춘 이후 큰 변화 없이 대나무 생태와 죽공예를 중심으로 한 전시를 이어왔다.

박물관은 수십 년간 이어진 공간의 흔적이 본격 공사로 사라지기 전에, 누구나 현재의 전시와 공간을 마지막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무료 관람 기간을 마련했다.

무료 관람 기간 관람객들은 박물관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오랜 기간 소장해 온 작품과 전시 공간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다.

특히 지역민들에게는 오랜 시간 일상에 자리해 온 박물관의 모습을 다시 마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물관은 향후 리모델링을 통해 미디어 전시물, 전망시설, 도서관, 휴게공간 등을 갖춘 현대적 공간으로 재구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통 대나무공예 문화를 이어가는 국내 유일의 대나무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의 새로운 문화 거점 역할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이번 무료 관람을



통해 많은 분들이 박물관의 과거와 현재를 기억하고, 새롭게 변화할 공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리모델링 이후에는 더욱 다양한 콘텐츠와 향상된 환경으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보다나온 농어촌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지**

금이 있습니다

**여**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